AirzinePlus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국토해양부
Airportal 항공정보포탈시스템
한국항공진흥협회 KADA KOREA CIVIL AVI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2011년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2011년 총괄)

요 약

2011년 우리나라 운항 및 여객은 전년대비 각각 7.1%, 5.6% 증가한 반면 화물은 전년대비 1.9% 감소

- ICAO, 2011년 전 세계 여객 전년대비 6.4% 증가, 화물 전년대비 0.7% 증가 잠정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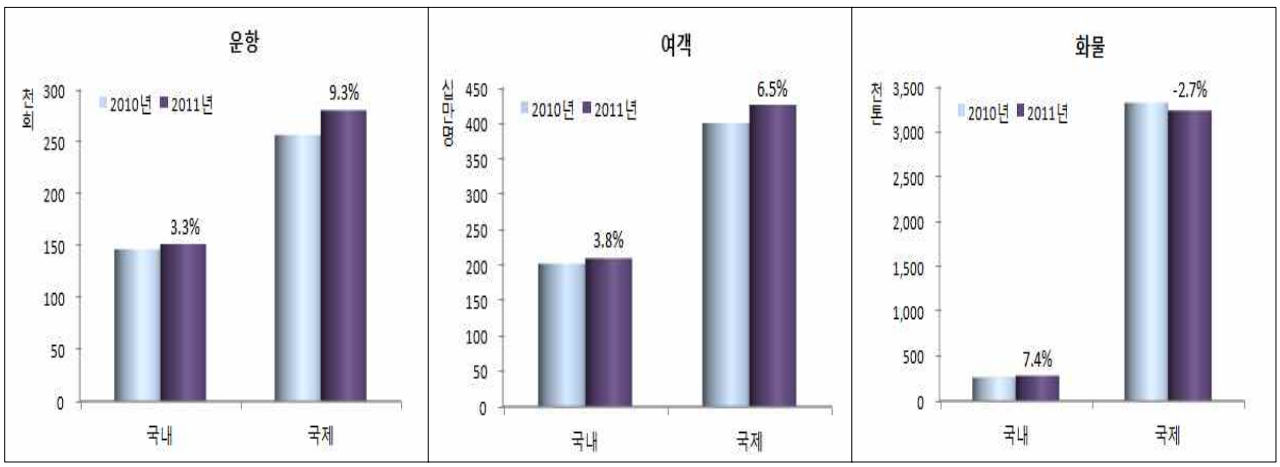
* 본 자료는 2011년 항공운송실적 잠정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차후 확정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11년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 여러 가지 외부 위험요인 영향으로 여객은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으나 화물은 전년대비 1.9% 감소

2011년 항공운송실적 요약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운항(회)	국 내	146,608	151,512	3.3
	국 제	256,688	280,571	9.3
	계	403,296	432,083	7.1
여객(명)	국 내	20,216,355	20,980,803	3.8
	국 제	40,060,948	42,648,555	6.5
	계	60,277,303	63,629,358	5.6
화물(톤)	국 내	261,859	281,133	7.4
	국 제	3,326,884	3,238,105	△2.7
	계	3,588,743	3,519,238	△1.9

2011년 부문별 항공운송실적 비교



□ 2011년 우리나라 항공시장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슈사항으로는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A380취항, 김포~베이징 노선 개설, 태국 방콕 대홍수사태, 저비용항공사의 약진, 국제여객 최고치 기록, 인천공항 개항 이래 환승객 최고치 기록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2011년 항공업계 이슈사항

3월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강타

5월

아이슬란드 그림스보튼 화산폭발

6월

칠레 푸예우에 화산 폭발

대한항공 A380 취항

7월

김포-베이징 취항

10월

태국 방콕 대홍수사태

11월

터키 동남부 강진 발생

12월

외래 관광객 900만명 돌파

2011년 이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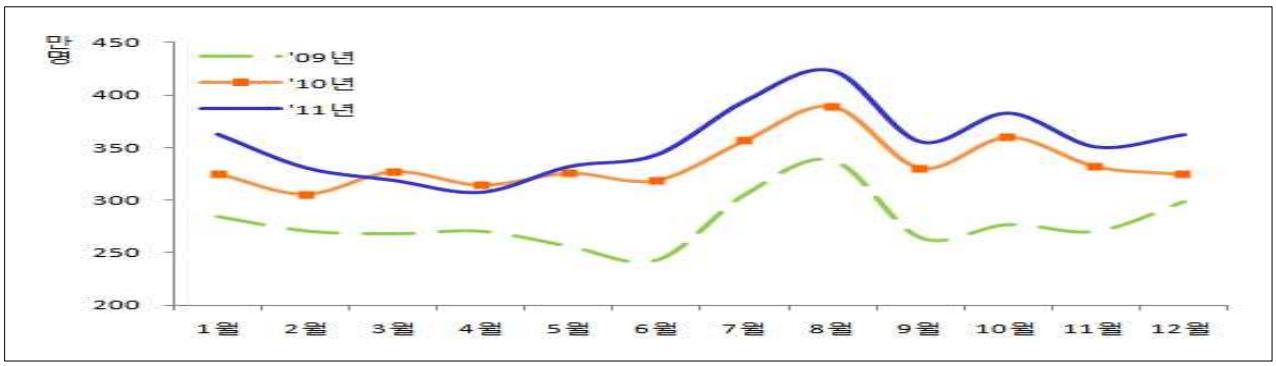
구분	이 슈 사 항
3월	· 일본 대지진 발생(3.11) 및 쓰나미 강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4월	· 일본 센다이 공항 운항재개(4.13)
5월	· 아이슬란드 그림스보튼 화산폭발(5.21) 23~25일 화산재로 인해 운항이 취소된 경우는 약 1%에 불과. 케플라비크 공항이 운항 재개(5.23)
6월	· 칠레 푸예우에 화산폭발(6.4)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의 항공 운항에 차질 · 대한항공 A380 홍콩, 나리타 취항(6.17)
8월	· 국제여객 역대 최고치 달성
9월	·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 개최(8.27~9.4) · 추석연휴(9.10~9.13) 및 일본 실버위크 휴일(9.19, 9.22)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10월	· KTX 전라선 개통(10.5) · 연휴 및 다양한 행사개최로 인한 항공이용객 증가 – 연휴: 개천절(10.1~10.3), 중국 국경절(10.1~10.9) – 행사: 부산국제영화제(10.6~10.14), FIA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10.14~10.16) · 태국 방콕 대홍수 사태, 북단 돈므앙공항 침수로 임시적 폐쇄(10.25~11.1) · 터키 동남부 규모 7.2 강진 발생(10.23)
12월	· 외래 관광객 900만 명 돌파(12.1) · 인천공항 2011년 개항 이래 환승여객 최고치 기록 · 알래스카 클리블랜드 화산재 분출(12.29)로 인해 북미 안전운항 차질 우려

국제여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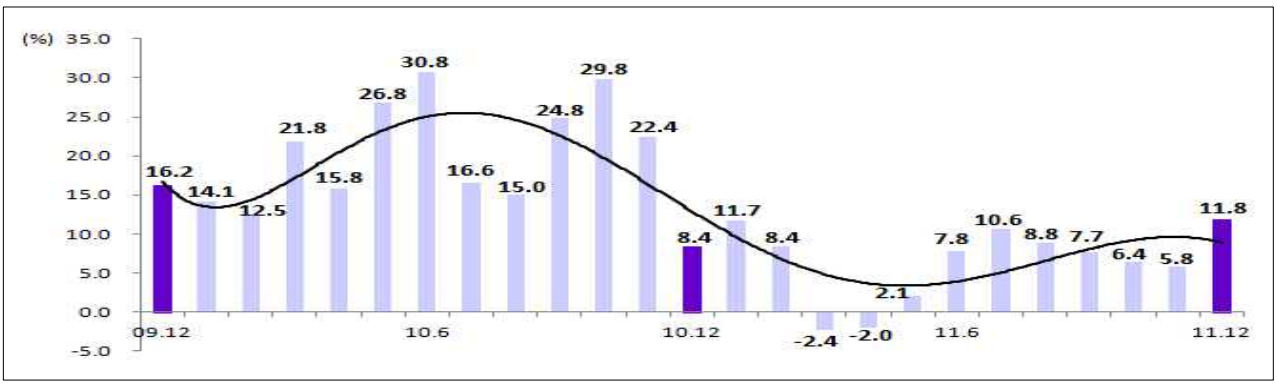
2011년 국제여객은 자연재해(일본 지진, 방콕 홍수 등), 유럽발 금융위기 불안확대, 유가상승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5% 증가한 4,264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역대 최초로 4,000만 명을 돌파한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내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2개월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국제여객수요 추이는 5월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성수기기간인 8월에 423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월별 국제여객 실적추이



월별 국제여객 증감률



월별 국제여객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11/'10)
1월	2,848,529	3,248,962	3,627,780	11.7%
2월	2,711,501	3,051,681	3,308,848	8.4%
3월	2,684,728	3,268,521	3,189,072	△2.4%
1분기	8,244,758	9,569,164	10,125,700	**5.8%**
4월	2,709,167	3,138,163	3,074,889	△2.0%
5월	2,566,007	3,253,176	3,320,215	2.1%
6월	2,434,717	3,185,098	3,434,073	7.8%
2분기	7,709,891	9,576,437	9,829,177	**2.6%**
7월	3,057,906	3,565,730	3,943,303	10.6%
8월	3,383,707	3,892,724	4,233,715	8.8%
9월	2,646,429	3,301,434	3,556,243	7.7%
3분기	9,088,042	10,759,888	11,733,261	**9.0%**
10월	2,773,307	3,598,710	3,829,447	6.4%
11월	2,708,137	3,315,031	3,506,969	5.8%
12월	2,989,640	3,241,718	3,624,001	11.8%
4분기	8,471,084	10,155,459	10,960,417	**7.9%**
계	33,513,775	40,060,948	42,648,555	**6.5%**

앞서 2011년 항공업계에 미친 여러 가지 이슈사항들을 정리해보았지만 그 중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외래 방문객 중 일본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단거리노선을 중심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진입, 거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여행우려 심리 확산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2/4분기까지 국제여객수요 성장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별 국제선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 항			여 객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인천	12월	18,306	19,379	5.9%	2,634,848	2,911,289	10.5%
	누계	210,218	224,687	6.9%	32,781,627	34,354,855	4.8%
김포	12월	1,534	1,733	13.0%	281,745	327,982	16.4%
	누계	15,135	18,799	24.2%	3,146,072	3,663,042	16.4%
김해	12월	2,053	2,515	22.5%	256,709	298,191	16.2%
	누계	23,061	27,970	21.3%	3,073,615	3,517,967	14.5%
제주	12월	377	525	39.3%	40,891	59,546	45.6%
	누계	5,351	5,728	7.0%	711,715	716,771	0.7%
대구	12월	83	65	△21.7%	10,508	7,553	△28.1%
	누계	1,066	1,306	22.5%	128,629	165,429	28.6%
청주	12월	121	131	8.3%	12,597	14,434	14.6%
	누계	1,089	1,327	21.9%	130,757	149,253	14.1%

연간 십만 명 이상 규모의 공항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구공항은 12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28.1% 감소하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지만 2011년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8.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를 촉진한 요인 중 하나로 태국 · 중국노선의 운항 증대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태국노선의 비중은 2010년 3.4%에서 2011년 16.4%로 13%포인트 높아졌으며, 태국국제여객수요는 전년대비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김포 · 김해 · 청주공항이 2011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인천공항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김포-베이징 노선이 10년 만에 부활한 이후 김포-베이징노선은 기존에 운항되던 김포-홍차오노선 여객 이상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높은 성장세를 견인하였다.

지역별 국제여객 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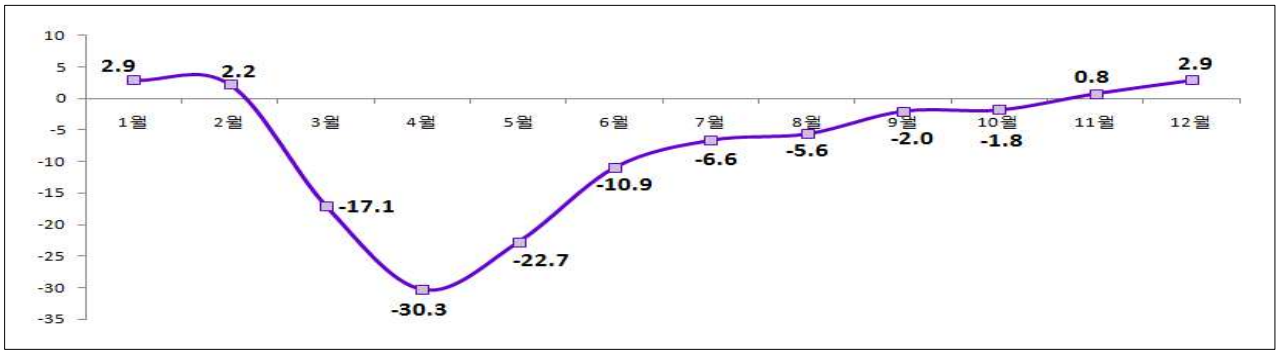
구 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타
'10년 12월	883,108	626,445	1,097,656	294,459	179,505	115,320	45,225
'11년 12월	908,985	690,041	1,288,462	325,437	204,170	155,339	51,567
전년대비	2.9%	10.2%	17.4%	10.5%	13.7%	34.7%	14.0%
2010년	11,189,761	9,169,564	11,574,590	3,704,330	2,578,292	1,248,693	595,718
2011년	10,374,889	9,731,326	13,704,373	3,903,426	2,849,726	1,438,182	646,633
전년대비	△7.3%	6.1%	18.4%	5.4%	10.5%	15.2%	8.5%

지역별로 살펴보면 12월 전 지역이 플러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1년 기준으로는 일본지역이 3월 대지진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대양주지역은 2010년 대비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지역이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10%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12월 전년대비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중국과 미주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는 약 5%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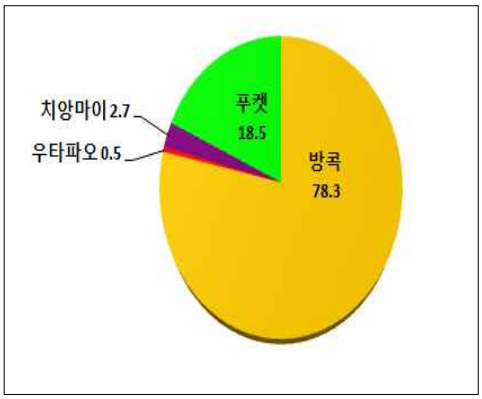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 11월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일본노선은 12월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2011년 전년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진 발생시점인 3월 급속하게 하락한 여객수요는 4월 전년대비 30% 감소하며 최저점을 기록한 후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난 9월 25일 센다이공항의 운항이 재개되고 엔화강세, 한류 열풍으로 인한 여행수요가 증가함으로써 12월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2.9% 증가하며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지진발생이후 일본노선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태국노선 전년대비 증감률 및 노선 비중

	2011.10		2011.11		2011.12	
	월간	누계	월간	누계	월간	누계
방 콕	3.5	27.7	△23.6	22.6	△8.2	19.4
치앙마이	50.1	41.6	88.7	48.7	164.0	62.7
푸 켓	21.7	30.5	46.7	31.9	35.6	32.2
우타파오		241.4		241.4		227.2
태국 계	7.5	29.0	△9.3	25.2	1.9	22.9



2011년 국제여객은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한 여객수요가 2/4분기 들어 회복되다 3/4분기 태국 방콕 대홍수사태, 터키 지진(10.23)로 인해 또 다시 성장세가 주춤해졌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향에 따른 여객변화를 보기 위해 먼저 태국노선을 살펴보면 대홍수 사태로 침수된 방콕은 2011년 연간실적을 기준으로 태국노선의 약 78%를 점유(태국노선은 동남아노선의 약 19%를 점유)하면서 방콕노선은 동남아노선의 약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 방콕 홍수로 인한 침수영향이 태국노선 뿐만 아니라 동남아노선의 여객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발생시점인 10월 방콕은 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11월 방콕 전년대비 23.6% 감소, 전체 태국노선 전년대비 9.3% 감소하면서 대폭 하락하였으나, 12월 방콕 전년대비 8.2% 감소, 전체 태국노선 전년대비 1.9% 증가하면서 방콕 침수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와 태국의 월별 증감률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방콕 대홍수사태로 인한 피해가 11월 극대화 되었다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12월 홍수 이전의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남아 월별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16.0%('11.10) → 10.0%('11.11) → 17.4%('11.12)
태국 월별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7.5%('11.10) → △9.3%('11.11) → 1.9%('11.12)
방콕 월별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3.5%('11.10) → △23.6%('11.11) → △8.2%('11.12)

지난 10월 23일 터키 동남부에서 발생된 규모 7.2의 강진은 한국의 주요 관광지인 서부, 중부지역과 거리상 한국과 일본의 삿포로 거리만큼 멀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1월 9일 인근지역에서 다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여행우려심리가 확산, 여객수요를 소폭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0월 23일~10월 31일 기간 동안 인천-이스탄불 여객탑승률은 2010년 동기간대비 약 17%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월 약 9%포인트 감소한 것에 비해 두 배정도 높게 감소한 것이었다. 2011년 10월 탑승률은 전년대비 11.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11월에는 20.2%포인트 감소하면서 지진 영향으로 가을철 여행 특수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이스탄불 여객탑승률 추이: 71.8%('11.10.23~10.31), 79.2%('11.10) → 55.4%('11.11)

2011년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6.0%로 전년대비 0.5%포인트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9배 증가하여 4.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0.0%('08) → 0.5%('09) → 2.3%('10) → 4.3%('11)
0.0%('08.12) → 1.1%('09.12) → 3.4%('10.12) → 5.3%('11.12)

2011년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운항 및 공급좌석 확대에 따른 환승여객 수요 증가, 적극적인 환승여객 유치 판촉활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년대비 9.0% 증가한 566만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인천공항의 주요환승축인 중국↔일본, 유럽↔일본 노선수요가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여객 수요 성장세보다 2배정도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 나리타공항을 제치고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5만명('09.12) → 40만명('10.12) → 50만명('11.12)
* 환 승 률 : 18.1%('09.12) → 15.1%('10.12) → 17.2%('11.12)

국내여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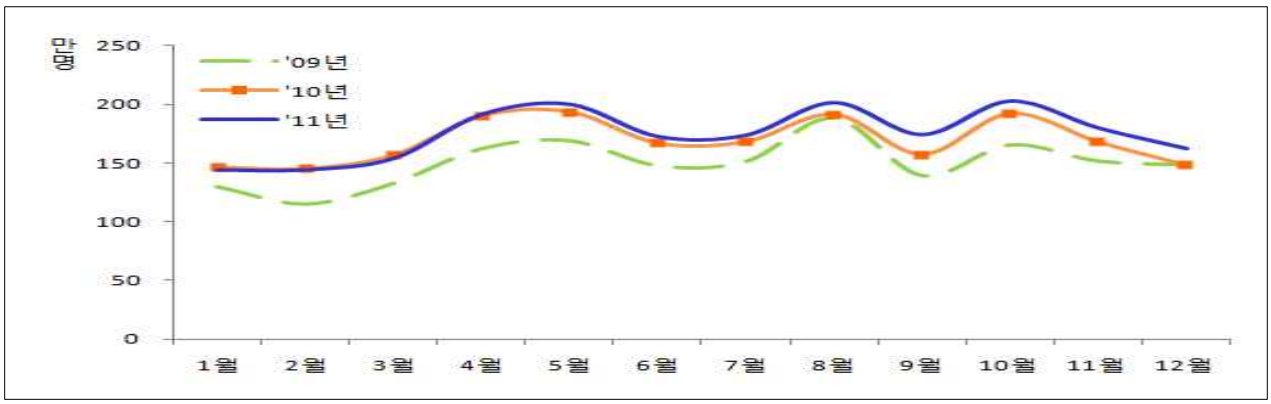
2011년 국내여객은 2010년 대비 3.8% 증가하며 운항(3.3% 증가)과 유사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기상악화, KTX 경부선 개통영향('10.11)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2/4분기부터 봄철 제주여행수요, 항공사들의 운임이벤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12월 전년대비 14.7% 증가하며 2011년 전년대비 9.7%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12월 전년대비 3.4% 감소, 2011년 전년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노선의 경우 KTX 개통이후 명절 연휴기간을 제외하고 큰 감소세를 지속하였는데, 12월은 운임할인 이벤트[1]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률도 12월은 제주와 내륙노선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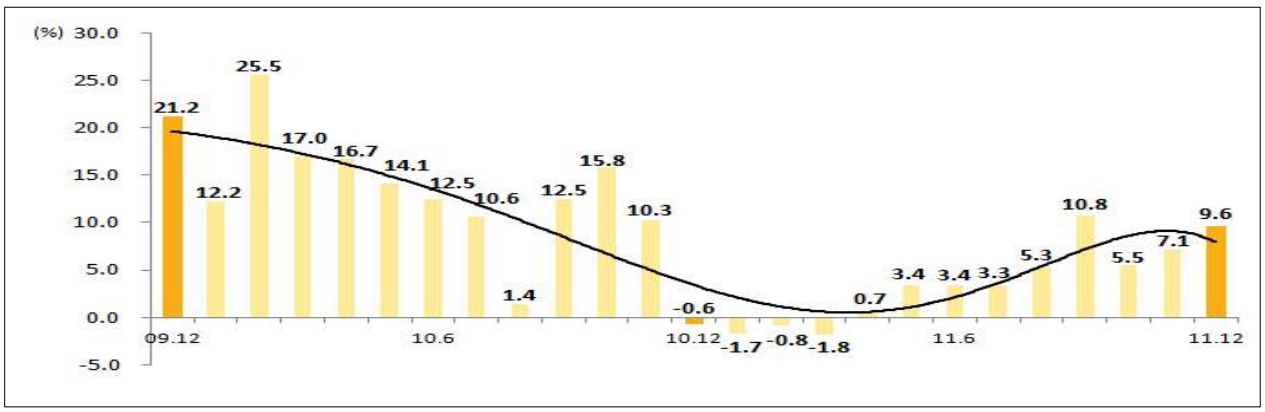
으로는 제주와 내륙노선 모두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운송량은 8,686,220명으로 2010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분담률 또한 6.7%포인트 상승한 41.4%를 기록하였다. 2011년 중 가장 높은 분담률을 기록한 시점은 8월로 42.7%를 기록하였으며, 8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42%대의 분담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국내여객 실적추이



월별 국내여객 증감률



1) 한국공항공사 항공운임할인 시범시행 : 김포↔부산, 김포↔울산, 김포↔포항 및 김포↔여수 노선 중 일부시간대 항공운임을 온라인 승객에 한하여 12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할인

제주·내륙노선 국내여객실적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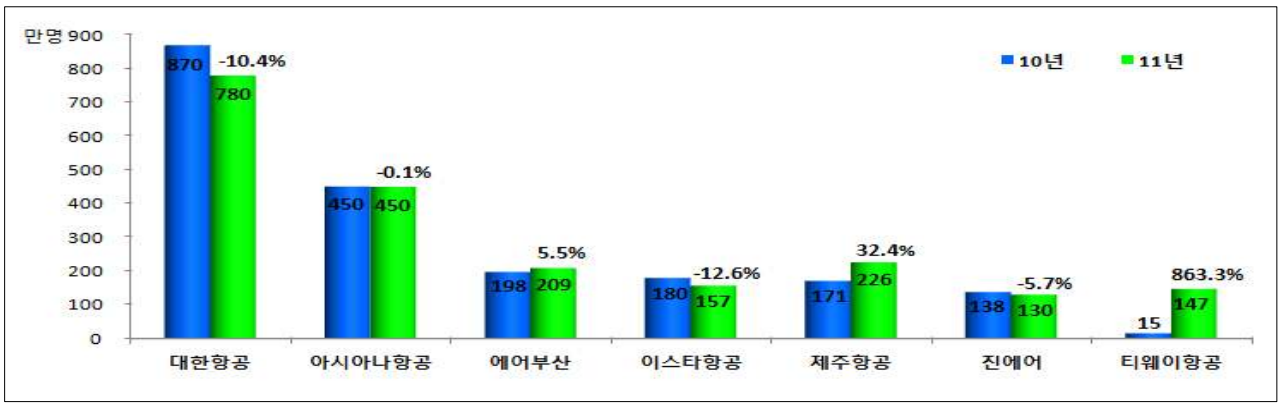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2010년 12월	1,061,140	68.4%	418,384	61.6%
2011년 12월	1,217,129	72.7%	404,255	63.0%
전년대비	**14.7%**	**4.3%p**	△3.4%	**1.5%p**
2010년	14,821,913	79.8%	5,394,442	66.6%
2011년	16,263,448	79.0%	4,717,355	61.8%
전년대비	**9.7%**	△0.7%p	**△12.6%**	**△4.8%p**

월별 국내여객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11/'10)
1월	1,302,087	1,461,208	1,436,730	△1.7%
2월	1,155,038	1,449,965	1,438,028	△0.8%
3월	1,331,943	1,564,031	1,535,898	△1.8%
1분기	3,789,068	4,475,204	4,410,656	△1.4%
4월	1,627,077	1,899,228	1,913,015	0.7%
5월	1,694,735	1,933,693	1,999,573	3.4%
6월	1,481,390	1,667,016	1,723,600	3.4%
2분기	4,803,202	5,499,937	5,636,188	2.5%
7월	1,517,615	1,678,862	1,734,491	3.3%
8월	1,886,467	1,913,541	2,014,022	5.3%
9월	1,397,083	1,571,412	1,740,432	10.8%
3분기	4,801,165	5,163,815	5,488,945	6.3%
10월	1,658,492	1,920,468	2,026,888	5.5%
11월	1,520,707	1,677,407	1,796,742	7.1%
12월	1,488,439	1,479,524	1,621,384	9.6%
4분기	4,667,638	5,077,399	5,445,014	7.2%
계	18,061,073	20,216,355	20,980,803	3.8%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주요 공항별 국내선 실적

(단위 : 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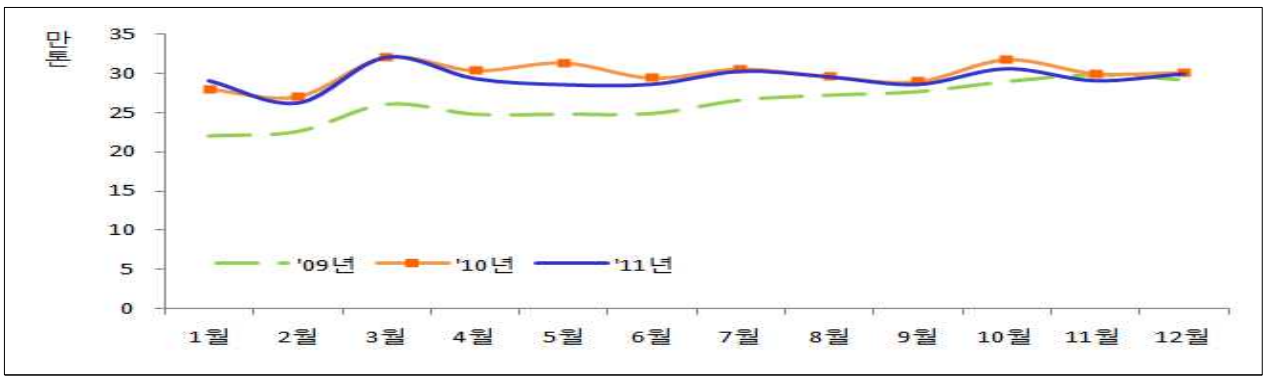
구 분		운 항			여 객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제주	12월	4,114	4,380	6.5	526,715	598,168	13.6
	누계	49,085	53,503	9.0	7,471,276	8,184,972	9.6
김포	12월	4,351	4,409	1.3	535,119	586,599	9.6
	누계	51,707	53,701	3.9	7,095,023	7,310,498	3.0
김해	12월	1,678	1,575	△6.1	191,310	205,374	7.4
	누계	19,572	19,277	△1.5	2,490,421	2,571,309	3.2
광주	12월	435	457	5.1	49,647	55,002	10.8
	누계	5,153	5,387	4.5	657,400	671,827	2.2
청주	12월	305	344	12.8	40,505	44,807	10.6
	누계	4,043	3,876	△4.1	570,988	580,128	1.6
대구	12월	303	302	△0.3	35,074	35,974	2.6
	누계	3,609	3,589	△0.6	507,071	501,940	△1.0
여수	12월	248	251	1.2	29,247	25,442	△13.0
	누계	2,821	2,901	2.8	324,951	312,565	△3.8
울산	12월	365	247	△32.3	29,428	25,697	△12.7
	누계	4,316	3,057	△29.2	488,491	294,534	△39.7

주요 공항별 국내선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 · 김포공항은 운항증가와 함께 여객수요 또한 증가하였고, 김해공항은 운항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울산공항은 운항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수요 또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 KTX 경부선에 이어 전라선이 개통됨에 따라 여수공항은 울산공항에 이어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1년 2010년 대비 3.8% 감소한 것에 비해 2011년 12월 전년대비 13.0% 감소한 것은 다른 영향요인보다 KTX 개통의 영향이 큰 점을 시사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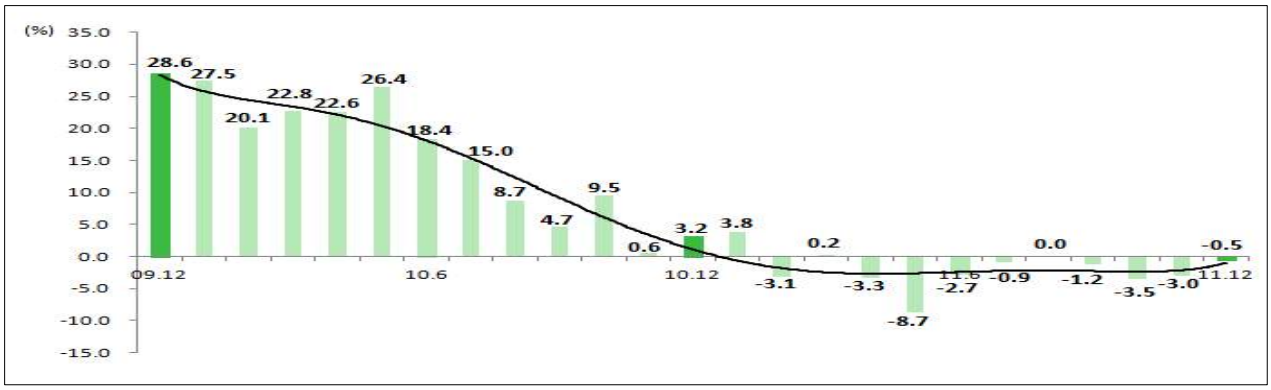
항공화물

2010년 이례적으로 1/4분기부터 급증하다 하반기 반도체수요 둔화, 재고량 조절, 단가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전체항공화물은 2011년 1월과 3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며 2010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5월까지 전체화물 성장세는 20%를 넘어서며 기존의 화물 성장세 추이와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2011년은 이러한 2010년 실적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부터 감소추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3월 실적이 월별 최고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3월 전체화물은 전년대비 0.2% 증가, 국제화물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체화물 실적추이



월별 전체화물 증감률



월별 전체화물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11/'10)
1월	219,595	280,032	290,667	3.8%
2월	225,328	270,720	262,461	△3.1%
3월	260,366	319,817	320,591	0.2%
1분기	705,290	870,569	873,719	**0.4%**
4월	247,386	303,274	293,323	△3.3%
5월	247,548	312,944	285,702	△8.7%
6월	248,324	294,098	286,105	△2.7%
2분기	743,258	910,316	865,131	**△5.0%**
7월	265,538	305,285	302,659	△0.9%
8월	271,940	295,701	295,635	0.0%
9월	276,339	289,361	285,927	△1.2%
3분기	813,817	890,347	884,222	**△0.7%**
10월	289,372	316,956	305,924	△3.5%
11월	297,832	299,676	290,769	△3.0%
12월	291,576	300,881	299,473	△0.5%
4분기	878,780	917,512	896,166	**△2.3%**
계	3,141,144	3,588,743	3,519,238	**△1.9%**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선진국 경제침체에 따른 구매위축 및 IT제품의 소형화 트렌드로 인한 중량감소, 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영향으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전년대비 2.7% 감소한 3,238,104톤을 달성하였다. 반면 국내화물은 1~2월 기상악화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3월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며 전년대비 7.4% 증가한 281,133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5%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2011년 2010년 대비 3.6% 감소하며 전체 항공화물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2] 제주공항이 2010년 대비 13.1% 증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 각각 3.2%, 3.6%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국제화물 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 등 주요 선진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전반적으로 화물시장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국제화물 실적

(단위 : 톤)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12월	41,253	50,343	75,860	57,976	46,719	4,717	3,700
'11년 12월	39,121	46,387	77,231	54,800	46,748	5,035	4,213
전년대비	△5.2%	△7.9%	1.8%	△5.5%	0.1%	6.7%	13.9%
2010년	474,179	627,985	852,336	723,679	560,655	49,900	38,150
2011년	439,415	598,681	859,696	685,018	554,449	55,005	45,841
전년대비	△7.3%	△4.7%	0.9%	△5.3%	△1.1%	10.2%	20.2%

2) 제주공항: ' 11년 49.5% 점유, 김포공항: ' 11년 26.2% 점유, 김해공항: ' 11년 2.6% 점유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곳은 일본으로 2011년 2010년 대비 7.3% 감소하였다. 일본은 지난 3월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한 공급체인 붕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 유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인 엔화 상승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2011년 2/4분기 이후 생산 감축, 경기침체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지속하였던 미주지역은 2011년 12월 연말 소비효과, 미국 경기회복 조짐 등에도 불구하고 12월 전년대비 5.5% 감소하면서 2011년 2010년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지역과 함께 유럽과 중국 또한 감소세를 지속되었는데 유럽은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으로 유로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46.9로 5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하회하였고, 중국 또한 긴축정책 여파로 인하여 12월 제조업 지수가 48.7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화물시장 또한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국과 유럽은 2010년 대비 각각 4.7%, 1.1% 감소하였다.

지식경제부 자료(금액기준)에 의하면 IT제품 수출은 글로벌 재정위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월 전년대비 3.4% 감소하며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0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화물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T시장은 2012년에도 세계 경기회복의 지연, 통신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정체 등이 예상되나 런던 올림픽으로 인한 스포츠 이벤트 특수, 스마트폰 · 태블릿PC ·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 27.3% → ('11) 2.0%

('10.12) 15.5% → ('11.12) △3.4%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 21.9% → ('11) 7.8%
('10.12) 21.8% → ('11.12) △3.9%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항공화물 감소와 함께 2011년 1,158,404톤으로 전년대비 1.5% 감소, 환적률은 전년대비 1.8%포인트 상승한 45.6%를 기록하였다.

2011년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 : 전년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 체	501.5 (△1.1)	313.9 (△7.1)	250.6 (0.7)	1,569.7 (2.0)
중국(홍콩포함)	269.4 (△0.3)	231.5 (8.1)	55.3 (△8.4)	738.6 (6.5)
미 국	27.3 (△25.1)	2.0 (△72.0	85.7 (1.6)	177.2 (△4.2)
일 본	30.8 (△7.6)	4.7 (△54.7)	19.9 (148.8)	83.9 (6.8)
E U	25.5 (△32.1)	36.7 (△30.7)	25.8 (△32.0)	144.9 (△22.9)

(출처: 지식경제부)

2011년 공항 출입국동향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등 외국인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1.3%, 내국인 출국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11.4% 증가한 837만 명, 내국인 출국은 3.1% 증가한 1,174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58.4% 수준이었다.[1)]

* 전체 출입국자 : 2,249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2,012만 명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년 752만 명 → '11년 837만 명)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년 1,139만 명 → '11년 1,174만 명)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5.5%,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2.5%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김포와 김해공항을 통한 외래객입국이 전년대비 25%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국인 출국의 경우 제주공항이 14.8%, 김해공항이 10% 증가하였다.

1)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출입국 현황

(단위 : 만 명)

구 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공항	비율 (%)	항구	비율 (%)	합계
외래객입국	611	61	115	45	5	837	85.5	142	14.5	979
내국인출국	954	126	71	5	18	1,174	92.5	95	7.5	1,269
계	1,565	188	186	50	23	2,012	89.5	237	10.5	2,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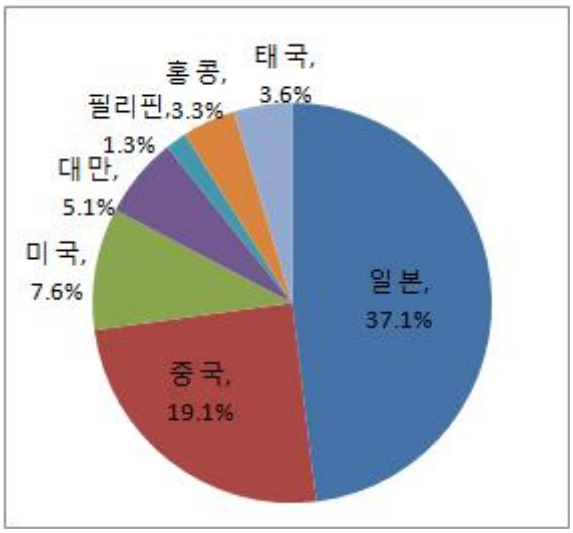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년 입국	'11년 입국	증감 (%)	점유 (%)	'10년 출국	'11년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7,518,338	8,374,903	11.4	85.5	11,390,004	11,742,367	3.1	92.5	58.4
· 인천	5,633,040	6,112,296	8.5	62.4	9,358,584	9,542,136	2.0	75.2	61.0
· 김해	493,841	614,860	24.5	6.3	1,148,084	1,263,064	10.0	10.0	67.3
· 김포	909,031	1,147,472	26.2	11.7	692,848	714,941	3.2	5.6	38.4
· 제주	433,345	450,828	4.0	4.6	39,852	45,770	14.8	0.4	9.2
· 기타	49,081	49,447	0.7	0.5	150,636	176,456	17.1	1.4	78.1
항구 등	1,279,320	1,419,893	11.0	14.5	1,098,360	951,366	-13.4	7.5	40.1
합 계	8,797,658	9,794,796	11.3	100.0	12,488,364	12,693,733	1.6	100.0	56.4

2011년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홍콩, 태국 국적의 외국인 입국이 전년대비 20% 안팎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필리핀도 13.4% 증가하였다. 2011년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7.1%, 중국이 19.1%, 미국이 7.6%에 해당한다.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입국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일 본	3,289	1,694	298	970	142	3,107	8.9	37.1
중 국	2,220	1,188	89	71	229	1,600	18.2	19.1
미 국	662	582	23	20	2	637	1.8	7.6
대 만	428	364	26	2	25	423	5.4	5.1
필리핀	337	85	17	1	9	111	20.5	1.3
홍 콩	281	247	27	1	3	279	23.6	3.3
태 국	309	289	12	1	0	304	18.7	3.6
전 체	9,795	6,112	615	1147	451	8,375	11.4	100.0